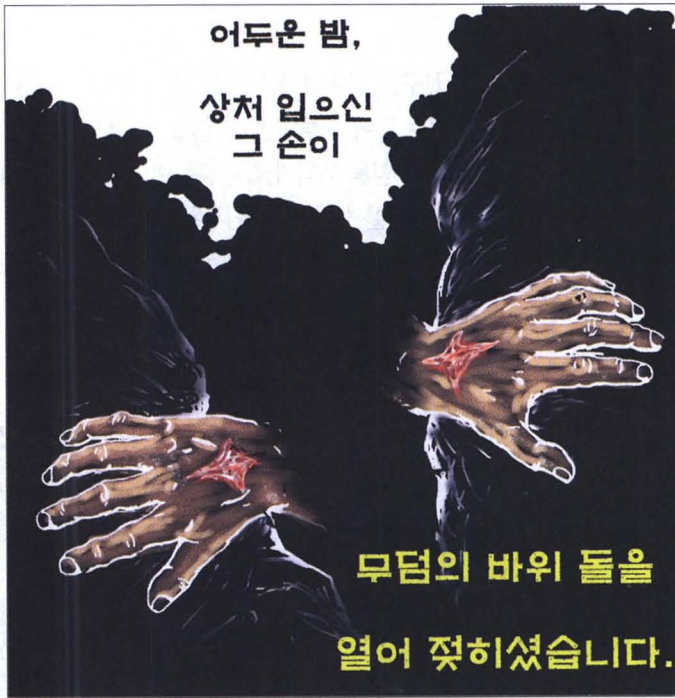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803호

주소 | 560-912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전화 | (063)285-0041 팩스 | (063)283-9365 http://j 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



문정섭  
(베드로)

### † 부활 성야 미사

- 제 1독서** 창세 1,1-2,2(또는 1,26-31)  
**화답송** 시편 104(103), 1-2, 7, 5-6, 10과 12, 13-14, 24와 35(◎ 30 참조)
- ◎ 주님, 주님의 영을 보내시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제 2독서** 창세 22,1-18(또는 22,1-2, 9-10-13, 15-18)  
**화답송** 시편 16(15), 5와 8, 9-10, 11(◎ 1)
-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주님께 피신하나이다.
- 제 3독서** 탈출 14,15-15,17  
**화답송** 탈출 15,1-2, 3-4, 5-6, 17-18(◎ 1 나 더)
- ◎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제 4독서** 이사 54,5-14  
**화답송** 시편 30(29), 2와 4, 5-6, 11-12과 13 나(◎ 2가)
- ◎ 주님,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기에, 제가 주님을 높이 기리나이다.
- 제 5독서** 이사 55,1-11  
**화답송** 이사 12,2-3, 4 나, 5-6(◎ 3)
-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제 6독서** 바룩 3,9-15, 32-4, 4  
**화답송** 시편 19(18), 8, 9, 10, 11(◎ 요한 6, 68c)
- ◎ 주님,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 제 7독서** 예절 36,16-17, 18-28  
**화답송** 시편 42(41), 3, 5 나 나: 43(42), 3, 4(◎ 42(41), 2))
- ◎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주 하느님, 제 영혼이 주님을 이토록 그리워하나이다.
- 서간** 로마 6, 3-11  
**복음** 루카 24,1-2

### † 부활 대축일 미사

- 입당송** 시편 139(138), 18, 5-6 참조
- 새로 태어나도 저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서는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시나이다. 알렐루야. 주님의 예지 참으로 신비하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제 1독서** 사도 10, 34, 37, 38-43  
**화답송** 시편 118(117), 1-2, 16-17, 22-23(◎ 24)
- ◎ 이날은 주님께서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 2독서** 골로 3, 1-4(또는 1코린 5, 6, 8)  
**복음 환호송** 1코린 5, 7, 8-8
- ◎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 강론을 담당하신 신부님께서서는 최근 증명사진(또는 편안한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활의 빛이 온 누리에

교구설정 70주년을 맞이하여 교구민 모두의 정성으로 새 교구청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때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루어낸 이 일을 지켜보며 우리는 또 한 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힘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터전이 부활하신 주님의 빛과 힘을 우리 지역 곳곳에 발산시키는 중심지가 되기를 기원하며 교구민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화와 있기를!”(요한 20,19).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들은 그 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요한 20,8-9).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 지혜나 계산만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정말로 믿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머리를 갸우뚱 하는 이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병호 주교  
(전주교구장)

부활을 믿기는 과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며 좋은 말씀을 다 들었던 제자들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그들의 불신을 꾸짖어 깨우쳐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 열 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마르 1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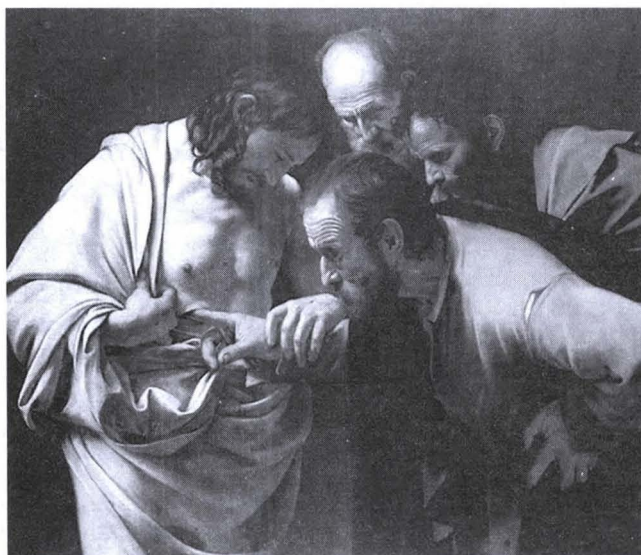
인간의 생각이나 계산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확인한 때부터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불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던 이는 토마였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이 그분을 만났다고 해도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 하겠소”(요한 20,25). 그러던 그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외치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

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요한 20,27). 토마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속이 풀리는 우리 모두를 대변합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1코린 2,9)을 두고 우리는 누구나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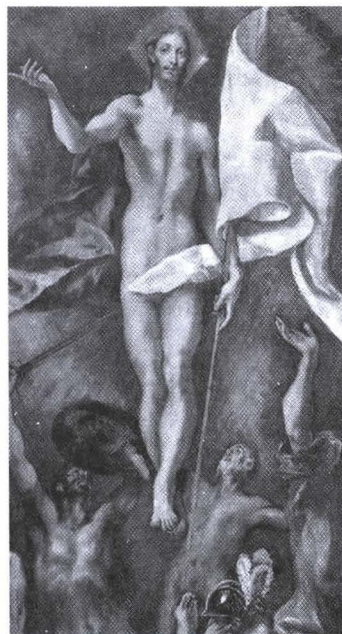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체험이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사시게 된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요한 14,20). 우리는 성령께서 내려오신 결정적인 <그 날>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체험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사도들과 “함께 일하심”(마르 16,20)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1코린 15,14) 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바탕인 부활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을 체험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구설정 70주년을 맞이하여 교구민 모두의 정성으로 새 교구청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 때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루어낸 이 일을 지켜보며 우리는 또 한 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힘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터전이 부활하신 주님의 빛과 힘을 우리 지역 곳곳에 발산시키는 중심지가 되기를 기원하며 교구민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요한 20,19).



▲ 카리버조, '성 토마의 불신 1600-1년경 포츠담, 노이에스 궁



▶ 엘 그레코의 '부활하는 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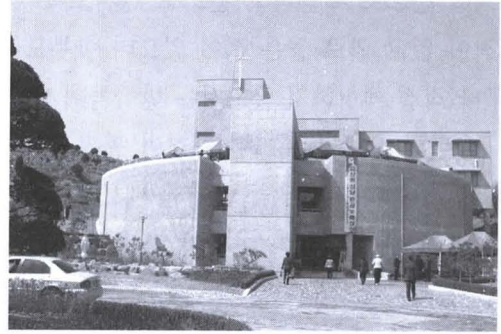
## 금상동 성당 축성식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046번지구 소리개재)에 위치한 금상동성당(주임=여혁구 신부)축성식이 지난 3월 30일(금) 오후 2시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집전으로 사제단과 수도자, 많은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1800평의 대지에 세워진 성당은 2005년 8월 30일 착공하여 1년 7개월의 공사 끝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908평의 전체 건물 중에 하늘 자리 납골당인 지하층과 1, 2층은 총 1만 5,776기의 유해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납골)당으로, 3층은 성당과 사제관으로 되어있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이곳은 사랑과 용서, 화해의 장소가 될 것이며, 좀더 관대하며, 기쁘게 사는 방법을 깨닫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사 후 축하식에서는 성당 신축 경과보고와 건



축 관계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전해졌으며, 금상동과 산정동에 사는 70여명의 금상동 성당 교우들을 대표한 노승남(안드레아)사목회장은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마련해 주신 교구장님과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연고자, 유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이원엽 기자

### ● 신동 꼬미시움 산하 레지오 뽀레시디움 간부 교육

지난 4월 2일(월) 신동 성당(주임=이사정 신부)은 신동 순교자의 모후 꼬미시움 산하 각 본당 레지오 뽀레시디움 간부 및 간부 예정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 교육을 가졌다.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오 강상근 단장은 교육을 통해서 “단원들이 양적으로는 많으나 질적으로 부족한 원인은 간부들이 무관심과 세속적 생활에 젖어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레지오의 기초가 되는 뽀레시디움 간부는 투철한 레지오 정신과 신념으로 단원들을 이끌고 양성하는 안내자이자 봉사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열심히 기도드리고 봉사함으로써 단원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성모님의 군대로서 가장 일선에 서있는 레지오 뽀레시디움이 활성화되면 본당도 활성화되므로

늘 순명의 정신으로 내 몸을 온전히 바쳐서 뽀레시디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간부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것”을 요청하였다. |손희정 기자

### ● 서신동 성당 주님 수난 성지주일 미사

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지난 4월 1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서신동 성당(주임=이태주 신부)에서 성주간을 알리는 주님 수난 성지주일 미사를 집전하였다.

성지축복과 성지행렬의 전례를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수난복음을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절망이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며, 부활 대축일에 내 자신에게도 일어나도록 성주간을 잘 지내자”며 성주간의 시작을 알렸다. |유정근 기자

#### 교통 사고 보상 상담

손해사정인

황 선 주 (프란치스코)

☎(063)236-1040

H·P 011-659-4985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 〈약산〉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라리)

- 밤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알리앙스 웨딩홀옆)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

#### 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서신동 E타워앞

☎(063)253-6075

#### 자연이 준 생명학의원

비염 아토피 비만 체질개선

진재호(진재호(빅토리아)) 오서진(마르가리타)

☎ 253-2599

#### 호성냉동

· 에어콘 · 저온 창고 · 업소용 냉장고

· 에어커터 · 에어커텐 · 버섯재배 설치

양태수(요왕) · 김경남(마리아)

☎(063)242-4959 H·P 011-659-8085

#### 젼인아트

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분석감정사

미국분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 대장항문병 전문병원 장문외과

치질 · 변비 · 유방클리닉

전문의 최성 양(루가)

전문의 안해 선(사도요한)

전문의 이철 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063)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밑



● 송학동 성당 사순 음악 대피정



송학동 성당(주임=박인근 신부)은 지난 3월 14일(목)에 사순절을 뜻 깊게 보내기 위한 사순 음악피정을 실시하였다.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에 걸친 이번 피정에는 본당 신자는 물론 소식을 듣고 온 타 본당 신자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사순 음악피정은 '하느님께 가까이' 라는 주제로 한국 가톨릭 문화원 박유진 신부님 외 생활성가 가수, 무대 조명, 음악담당, 영상 촬영 등 많은 분들의 숨은 노력이 함께 하였으며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 주님 수난시기를 영상과 함께 느껴보는 생생한 체험의 시간이었다. 또한 피정 막바지에는 찬양과 기도, 말씀, 그리고 영상이 함께 어우러져 특별함을 더했다.

조은아 기자



묵상하는 시간이었다. 예수님의 잡히심과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의 고통을 영상으로 보며 신자들은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다시한번 온 몸으로 예수님의 수난을 느껴보는 시간이었다.

이선숙 기자

● 요촌 성당 성령묵상회



● 신태인 성당 전신자 성령 피정

지난 4월 1일(주일)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술 신부)은 전신자를 위한 성령 피정을 가졌다. 미사 후 3시간 동안 진행된 피정은 이성주 신부와 동행한 성령 색신 봉사자 청년들과 같이 노래와 울동으로 시작되었으며 '십자가에서 만난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신부님의 강의 사이사이에 청년들의 노래가 신자들의 분위기를 살려 주었고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었다. 음악과 강론으로 이루어진 이날 피정은 예수님의 수난을 마음으로 느끼며 십자가의 길을

요촌 성당(주임=박종신 신부)은 지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성령 묵상회가 24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견진준비도 하고 본당 공동체 신심 강화를 위해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묵상회에서 전주교구성령봉사회(지도=김용태신부) 안득수 회장은 '성령안에서 새 생명'이란 주제로 실생활 중심으로 체험담을 들려주고 성령받음에 도움을주고 물로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충만으로 새롭게 태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자고 주문하였다.

최진순 기자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형제적 사랑으로 제주관광 및 성지를  
정성껏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시  
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차량 · 호텔 예약 문의  
☎(064)758-6476 H-P 011-697-6476

비새는집 100% 방수

방수, 단열, ISO 9001 인증  
기와, 스퀘트, 슬라브, 축사, 기타  
신기술 방수, 단열 방음, 3중효과  
삼부주택개발 김 원(토마스)  
문의 : 010-8228-3424

저농약으로 재배한 참살이 식품  
현미참쌀 판매합니다

20KG : 40,000  
김제시 성덕면 묘라마을  
문의 : 542-5508, 018-610-5508  
임태섭(토마스)

대학종로약국

대학병원 처방 전문  
약사 정귀진(요셉)  
베석환(엘리아)  
한종옥(크리스티나)  
전북대학병원 제2주차장 앞  
☎(063)274-5425, FAX274-5424

본당 발전과 친목을  
위한 바자회

일시 : 4월 20일(금)~22일(주일)  
오전 10시~밤 10시까지  
장소 : 삼천동 성당 잔치마당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127차 성지순례

이집트 / 이스라엘 / 0탈리아 / 바티칸  
출발 : 2007년 5월 25일~6월 4일(10박 11일)  
매일 미사 드립니다.  
전 일 관 광  
조 선 (안토니오)  
문의 : 063-288-6666

서울 성가소비녀회  
성소모임

일시 : 셋째주일 오후 3시  
장소 : 효자동 성당 수녀원  
문의 : 063-223-3822

# 빛바랜 사진 속에 담긴 아



◀ 나바위 성당 유치원 어린이들이 성당 마당에서 길게땀 땀머리를 나풀거리며 춤을 추고 있다.

▶ 회초리를 든 어른들이 지켜보는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찰고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하면서도 두려운듯 하다.



◀ 지독한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지정환 신부가 세운 그 당시론 현대적인 임실 치즈 공장이 정감어린 초가지붕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뽕죽집'이라 불리며 전주의 명물이었던 전통성당이 초가지붕과 풍남문 성벽사이에서 그 위엄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던 산간지역 신자와 주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1959년에 개원한 장계 매괴 병원.



# 추억, 그때 그 시절 속으로

▶ 옛 해성중·고 자리로 지금은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는 숲정이 순교터에 세워진 순교비에서 신부님들이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1950년 인민군에 의해 체포, 구금되었다가 가까스로 석방된 김현배 교구장(앞줄중앙)과 성직자들의 텃수룩한 수염과 초췌한 모습에서 얼마나 마음과 몸 고생이 심했나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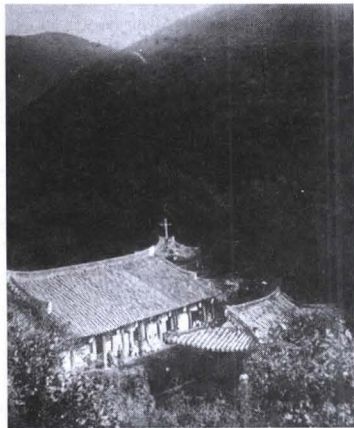
▲ 창인동 성당 교리경시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바닥에 꿇어 앉아 교리문제를 푸느라 여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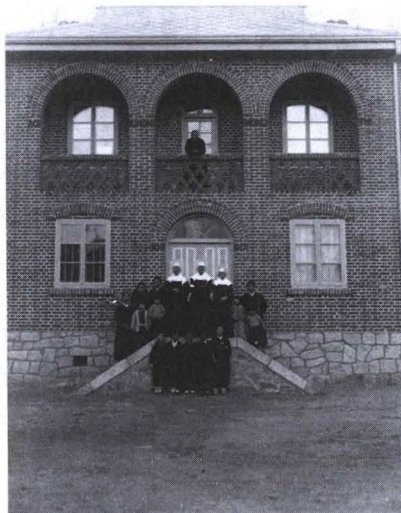
▲ 말을 타고 터벅터벅 산넘고 물 건너며 신자를 찾아 다니던 드망즈 주교가 신성리 본당 사목 방문을 마치고 장성으로 넘어 가던중 잠시 쉬고 있다.



▲ 성김대건 신부가 상륙한 화산(나바위)에 그의 동상을 세우기 위해 신자들이 무거운 돌을 목도질로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다.



▲ 1989년 10월 10일 설립된 되재성당. 전통한옥형태의 팔작기와에 단층 5칸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으나 6.25때 불에타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 1937년 10월 12일 전주교구에 최초로 진출한 샬트르 성바로로 수녀회 수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역사사진, 영상 전시회 :  
4월 12일(목)~15일(주일)  
새 교구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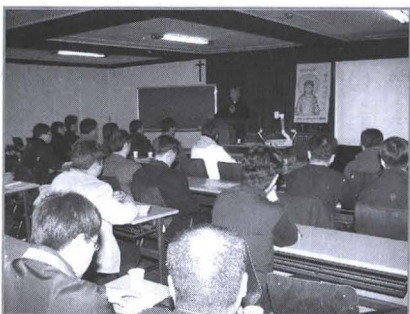
# 아버지로서 나는 누구이며

## 어떤 사람인가? 성찰의 시간

‘아버지’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 또는 가족을 주제로 다루는 많은 교육에서도 ‘아버지’는 지금까지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주제 중 하나이다. 사실 ‘어머니’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많이 있어왔고, 그 결과 ‘어머니를 위한 교육’은 많이 실시되어왔다.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를 주제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아버지의 역할이나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미 ‘아버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가정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아버지를 위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가정사목부에서는 지난 1월 20일과 21일에 ‘제1회 아버지학교’를 열었다. 처음 실시되는 프로그램이기에 4시간씩 이틀간에 걸쳐 총 8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제는 ‘가족과의 참 만남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주제에서도 그 목적이 나타나듯이 아버지 학교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들을 가족과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버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욕구와 성취감, 그리고 인정과 사랑, 슬픔과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는 ‘돈버는’ 기계가 아니며,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도 고민이나 감정 없이 헤쳐 나갈 수 있는 ‘터미네이터(?)’



교구 가정사목부 프로그램 도입 가족과 참 만남을 위한 체험의 장

가 아닌 따뜻한 심장과 여린 감정을 지닌 ‘사람’이다. 이러한 인식은 아버지 ‘자신’이나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번 ‘아버지 학교’는 첫째 날,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아버지 자신의 정체감과 자기 통찰에 초점을 두었다. 올바른 자기 인식이 가족 간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에 아버지들이 새롭게 자기 인식의 경험을 하도록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가족과의 의사소통 양식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인 ‘나’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다른

가족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인 ‘나’는 가족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면의 감정과 그 내면의 깊은 기대와 소망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경험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중 대부분이 짧은 시간의 경험 속에서도 자신은 물론 가족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좀 더 충분한 시간으로 자주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한 가정사목부 김정민 신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기에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더욱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교구차원이 아닌 본당 또는 지구차원에서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취재: 이원엽 기자



## “My heart will go on(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당신)” -

(홍보국장 서석희 신부)

1. 가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복음사가들이 복음을 기록할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가 궁금해질 때가 있다. 그들은 그들이 만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또한 그 기록을 더 분명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만나봤을 것이다. 그들은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와 꿈을 갖게 되었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존재가 구구절절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상상하건대, 모닥불 주변에 둘러 앉아 ‘내가 만난 그분은 이런 분이었어요…….’라고 시작하며 말문을 트는 사람의 증언을 들으며 눈을 반짝이며 흥분을 감추고 열심히 경청하는 복음사가들의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으리라.

2. 1997년 개봉되어 놀라운 흥행기록을 세우며 찬사를 받았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Titanic)>은 벼랑 끝에 내몰려 절망에 빠졌던 한 여인이 누군가가 내민 손길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이다. 영화 속에서 우리는 101살 먹은 할머니의 주변에 앉아 할머니가 86년 전에 ‘타이타닉호’에서 만나고 체험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영화적인 ‘플래시백’ 형식-과거 기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영상기법-을 통해 보이는 그녀의 과거 속에서 그녀의 체험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그녀가 젊은 시절에 내키지 않은 삶을 강요받으면서 살다가 급기야는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그 때 만나고 체험했던 ‘그’는 다름 아닌 그녀의 목숨 뿐 만아니라,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를 일깨워주고 그녀를 위해 희생

한 ‘그’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 한 후 이렇게 말한다. “이제 여러분은,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자유롭게 해준 분입니다. 비록 ‘그’의 사진 한 장조차도 없지만, 여전히 ‘그’는 제 가슴 속에서 살아있습니다.”는 고백을 낮을 잃고 듣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해주는 빛바랜 그녀의 사진을 통해 그녀가 지난 시간들을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비록 사라졌지만, 여전히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그’의 향기를 느끼게 된다. 동시에 영화의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은 그녀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순간의 짧은 만남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그 만남을 가로막아도 그녀는 매일매일 ‘그’를 만나고 느낀다는 것, 즉 ‘여전히 그는 그녀의 삶 속에서 살아있다(My heart will go on)”고 고백한다.

3.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부활의 첫날, 그 ‘살아계심=부활’의 의미를 헤아리며 한편 영화 <타이타닉>을 기억해본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짧은 순간 우리와의 만남을 이룩하신 그분, 우리에게 참생명의 의미를 일깨우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떠난 그분과의 뜨거운 만남, 그분은 우리 가슴 속에서 여전히 “My heart will go on”인가? ‘부활’의 의미를 미디어를 통해 되새기며 볼 수 있는 한편의 영화가 있다면, 영화 <타이타닉(Titanic)>을 권하고 싶다.

**교구장 일정**

- **천주교 성가복지회 이사회**  
4월 10일(화) 오후 2시
- **재무평의회**  
4월 11일(수) 오후 2시
- **교구설정 70주년 기념 미사 및 새 교구청 축복식**  
4월 13일(금)
- **마리아폴리**  
4월 14일(토) 전주대 예술관
- **견진**  
4월 15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고창

**미사 · 행사 · 모임**

- **가정성화 미사**  
4월 9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M.B.W. 콘비벤자**  
4월 9일(월) 오후 7시 센터
- **교구 사회복지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레미사**  
4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천주교 성가복지회 이사회**  
4월 10일(화) 오후 2시
- **사제아버지회 월레모임**  
4월 10일(화) 오전 11시 초남이 성지
- **재무평의회**  
4월 11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묵상 관상기도 피정과 미사**  
4월 11일(수) 오후 7시 유아동  
대상 : 누구나  
문의 :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교구설정 70주년 기념 축하음악회**  
4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 전동  
4월 14일(토) 오후 7시 전동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4월 12일(목) 오전 10시 덕진
- **교구설정 70주년 기념미사 및 새 교구청 축복식**  
4월 13일(금) 오후 2시
- **가정방문실 미사**  
4월 13일(금) 오후 2시 30분
- **포콜라레 호남지역 마리아폴리**  
4월 14일(토) 오전 9시 30분  
전주대학교 예술관 / 대상 : 17세이상  
참가비 : 일반 5천원, 중 · 고 3천원
- **전고 천동연 신입생 환영미사**  
4월 15일(주일) 오후 5시 센터
- **익산 하나회 미사**  
4월 15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교육 · 피정 · 연수**

- **레지오 단원교육**  
4월 9일(월) 쌍교동
- **제12회 전주교구 장애인 체육대회**  
일시 : 4월 15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군산대학교 체육관  
기타 : 체육대회를 위해 후원해 주실 분은 문의처로 전화  
문의 : 회장 임한복(011-672-6509)  
지도신부 : 양석현(011-681-0610)
- **자원봉사자 모집**  
전주카리타스봉사단에서는 교구설정 70주년 기념미사 및 새 교구청 축복식 행사에 사용할 의자(약 6천개) 정리를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 4월 12일(목)  
오전 9시~12시(남성:의자 상,하차)  
오후 1시~5시(여성 : 의자 배열및 세척)  
4월 13일(금) 행사 후(남,녀 모두)  
준비물 : 남성-장갑, 간편복장  
여성-고무장갑, 갈레, 간편복장  
신청 및 문의 : 단장-김정규 헨리코 (011-9861-6850)  
총무-변효석 루도비코 (010-6797-8291)

**삼성산 성지 2박3일 치유대피정**

때 : 4월 13일(금) 오후 6시~15일(주일) 오후 3시  
장소 : 삼성산 성지대성전(무료 · 식사제공)  
미사 : 송광섬(베드로)신부  
문의 : 광노철(모세 바울)회장  
011-721-7808

• **여성 제 94차 꾸리실로**  
5월 10일(목)~13일(주일)  
마감 : 4월 10일

**기타**

- **본당 평신도 지도자 2단계 교육**  
교육일정 : 전주, 김정고부, 임순남무진장지구  
4/17, 24, 5/1, 8(매주화) 오후 7시~9시 삼천동 군산지구  
4/18, 25, 5/2, 9(매주수) 오후 7시~9시 나운동 익산 남 · 북 지구  
4/20, 27, 5/4, 11(매주금) 오후 7시~9시 어양동  
참가대상 : 본당 사목위원 및 제단체 간부  
참가비 : 1인당 12,000원  
(교재 및 간식제공, 매 2시간 4회교육)  
준비물 : 필기도구  
참가신청 : 4월 7일(토)까지 사목국  
FAX : 285-0049

4월 좋은 영화  
**제목 - 타이타닉**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의 침몰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피어난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초대형 스펙타클 재난 영화.

일 시 : 4월 11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95분 / 관람비 : 천원

**수도회 성소모임 안내**

수도회명	모임일시	모임장소	문의
사랑의 씨앗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용머리 성당 수녀원	010-5705-5004
성바오로말수도회	첫째 (화) 오후 7시	전주 바오로말 서원	063-252-3398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성당 수녀원	063-244-0094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2-793-2070
마리아의 딸 수도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북홍공소	063-653-8004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솔내 성당	063-858-4724
경로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해월리 경로수녀원	063-243-1440
예수수도회(익산)	둘째 주일 오후 2시	익산 성모병원	010-7250-4749
아씨사의 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군산 나운2동 성당 수녀원	063-467-9200
작은 예수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동산동 전주장애인공동체	063-212-1589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셋째 (토) 오후 6시	가정방문실	016-634-5637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화산동 성당 수녀원	063-225-3675
전교 가르멜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3-274-9262
노틀담 교육 수도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동산A.1동 1303호	063-246-8376
예수 성심 시녀회	넷째주일 오후 3시	아중성당수녀원	016-649-2045
미리내 천주성심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031-674-1251
인보성체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3-284-3231
선한목자 예수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서울 길음동 본원	02-919-2754
까리따스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덕진 수녀원	063-272-5304
서울성가 소비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효자동 수녀원	063-223-3822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3층 성소국	011-9852-9817
관상 · 착한목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가정의 집	011-9653-8805
성가정 카푸친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4시	동산동 아미고의 집	063-214-4041

#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옥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서목회장: 김기정

- ◎ 축! 예수 부활: 주님 부활 대축일을 축하드립니다!
- ◎ 다음 주(15일)부터 가톨릭성이 창미사곡으로 변경합니다.
- ◎ 구약성경 쓰기: 4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범위-잠언~집회서, 욥기)
- 1. 오늘: 예수부활대축일 미사 후 나눔 잔치
- 2. 금주 ① 사목회, 벤야민회 11일(수) 후8시  
② 성시간, 성체강복 12일(목) ③ 마리아교회 12일(목) 미사 후  
④ 새교구청 축성식 13일(금) 후 2시: 12시 30분 성당에서 출발
- 3. 감사: 자전거 거치대 기증(영풍철강 박영수)
- 4. 감사헌금: 신현식 50만, 소정순 10만
- 5. 신축헌금: 장미경 10만
- 6. 차주 ① 하나님의 자비주일 2차 헌금  
② 아치에스 행사(교중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116,800원 ■ 교무금: 1,210,000원

##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상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서목회장: 김원태

- ◎ 성서읽기: 4월 둘째주간-지혜서8장~14장
- ◎ 부활절 행사에 수고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 성당청소: 4월14일(토)-다양1,2만
- 1. 모임 ① 울프레아- 공식미사 후  
② 성모회- 4월13일(금), 전10시 미사 후
- 2. 금주전례: 해설-오승자, 독서-김원태 부부, 봉헌-장춘호 부부  
기도-황두연, 양종운
- 3. 차주전례: 해설-박영주, 독서-강원석, 임순남,  
봉헌-이승희, 전이선, 기도-강미애, 함은화  
■ 지난주 봉헌금: 663,000원 ■ 교무금: 959,000원

##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운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서목회장: 정윤열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6521004>

- ◎ 부활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부활절 행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교구설립70주년 기념미사 및 새가톨릭 센터 축복식-13일(금)후2시
- ◎ 예비자교리 매주 ① 주일반-주일 오전8시40분  
② 목요일반-저녁미사 후
- 1. 금주모임: 여성분과, 요셉회-미사 후
- 2. 차주모임: 테레사회, 울프레아-미사 후, 성모회-18일(수)
- 3. 청소년: 금주-예언자들의 모후, 차주-파티마의 모후
- 4. 차량봉사: 이기주 임래연, 차주-김진환 김희중
- 5. 감사헌금: 이길님(안나)  
■ 지난주 봉헌금: 935,000원 ■ 교무금: 1,595,000원  
■ 2차헌금: 412,300원

##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성팔  
유지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서목회장: 영영석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 '주 참으로 부활하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1. 교구설립 70주년 기념미사 및 새 교구청 축복식: 13일(금)  
출발 - 오전 11시 30분, 참가비 - 5,000원
- 2. 부활맞이 준비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3. 봉성체: 12일(목) 후 1시 30분부터, 사무실에 신청바람.
- 4. 성가와 함께하는 연수: 14일(토) 후 7시, 강사 - 김정선 수녀님,  
장소 - 교육관, 연수비 - 5,000원
- 5. 선교를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현재 650,420단
- 6. 센터 신축헌금 신입액: 159,724,000원, 납입액: 127,474,000원
- 7. 감사헌금: 박영신-50만, 박옥순-100만, 형계순-3만  
■ 지난주 봉헌금: 2,133,600원 ■ 교무금: 2,088,000원

##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정성수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서목회장: 구동수  
연동공소: 433-3177 유지원: 433-2293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네!!
- ◎ 전례봉사와 성당청소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금주 ① 8일(일) (새벽, 공소미사 없음) 예수부활대축일 나눔 잔치,  
전례 및 봉사 부귀지역, 해외성지순례 신청자 모임(미사 후, 소성당)  
② 9일(월) 미사 없음 ③ 12일(목) 미사 후 사목회  
④ 13일(금) 본당미사 없음 70주년 기념미사 및 축복식 12시 출발  
■ 지난주 봉헌금: 1,059,000원 ■ 교무금: 1,470,000원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광석  
F A X: 642-6319 서목회장: 변홍섭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묵주기도 누계: 201,159단
2.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3. 성서를 통독 합시다.
4. 금주전례: 해설 - 문정희, 독서 - 이종권, 이진영
5. 차량봉사: 김옥기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 차주전례: 해설 - 조경희, 독서 - 변홍섭, 이영자
7. 차량봉사: 이기을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종중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서목회장: 노재진

- ◎ 성주간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1. 공소미사: 삼길 -15일(일) 후6시
- 2. 성목요일, 부활 대축일 꽃 봉헌: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3. 은인을 구합니다: 수녀원 비품 -계시관 참조
- 4. 감사헌금: 박병연(희순루시아) -5만원, 조진규(스테파노) -2만원  
설동호(시몬) -5만원
- 5. 본당설립 50주년 기금: 정옥만(베드로)-4만원, 누계-64,234,131원
- 6. 차주전례(15일) ① 해설-임덕자 ② 독서-이상윤, 임석주  
③ 봉헌-최명규 부부
- 7. 구역모임 ① 11일(수)-임1,3,6 ② 12일(목)-임2,5 ③ 13일(금)-임4
- 8. 청소년담당구역 ① 오늘-신평 ② 13일(금)-임실1,6 ③ 15일(일)-청운  
■ 지난주 봉헌금: 857,000원 ■ 교무금: 842,000원  
■ 사순절 공동헌금(주님수난 성지주일): 280,000원

##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엄기봉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서목회장: 이상호

- ◎ 오늘은 조선신자 초대주일
- 1. 우리장계본당 가정은 성구가혼을 만듭니다  
① 기간: 3월18-4월15일 ② 전시회: 4월22-4월29일  
③ 시상식: 5월6일(주일공식미사중)
- 2. 사목회 12일(목요일) 미사 후
- 3. 가톨릭센터 축복식(금) 13일12시30분 출발합니다
- 4. 울프레아 13일(금요일) 저녁8시
- 5. 부활준비에 수고하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760,900원 ■ 교무금: 715,000원

##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진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서목회장: 박동표

- ◎ 우리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미사 후 전신자 나눔 잔치
- ◎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풍성하시길 기원합니다.
- ◎ 봉성체 - 14일(토)
- ◎ 서신동 성당 바오로회 의료봉사활동  
※ 일시: 22일(일) 교중미사후 - 후5시까지  
※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청년의 봉사활동: 09시까지 성당모임)
- 1. 차주참여공소: 수분 2. 차주공소미사: 상동
- 3. 금주전례: 김호준, 차주-김원순
- 4. 금주독서: 이경준, 임미하, 차주-정영수, 최선영
- 5. 금주봉헌: 김삼석, 김옥순, 차주-이승하, 이옥주
- 6. 차량봉사: 금주-박충기, 차주-김철수  
■ 지난주 봉헌금: 408,800원 ■ 교무금: 520,000원

2. 차주 ① 15일(일) 선교사뎀기 2차헌금, 이명서 베드로회  
② 16일(월) 전9:30 산악회 모임(마이산)
3. 첫영성체 교리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감사헌금: 임병주 십오만, 최스테파노 십만, 라대건안드레아 삼만,  
박야고보 일만  
■ 지난주 봉헌금: 1,059,000원 ■ 교무금: 1,470,000원



# 초대합니다

“하나되게 하소서” (요한 17, 21)

우리 교구가 자치교구 설정 70주년을 맞이하여  
새 교구청을 마련하였습니다.

‘70주년 기념미사 및 교구청 축복식’에 함께 해 주시고  
교구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07년 4월 13일(금)

• 미사 및 축복식 - 오후 2시

• 축하식 - 오후 4시

■ 장소 : 천주교 전주교구청 광장

전주시 남노송동 리베라 호텔 맞은 편(구 전주공업대학)

\* 축하 음악회 : 교구합창단 - 4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 전동성당

창 세 기 - 4월 14일(토) 오후 7시, 전동성당

\* 역사사진, 영상 전시회 : 4월 12일(목)~15일(주일) 새 교구청 <내>

천주교 전주교구 설정 70주년 · 천주교 전주교구청 축복식

하나되게 하소서